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2월 23일 (제104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만나면 일단 겁부터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어를 모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장래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고로 두려움의 본질은 무지(無知)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무지란 마치 어두움과 같아 그 안에 무엇이 꽈리를 틀고 있는지 모르기에 두렵다.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니 얼마나 불안할까.

사람들은 '사람 인(人)'자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푼다. 그러나 나는 인(人)은 사람끼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부터 계셨고, 나중까지 계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지에서 해방되고, 어두움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잠29:25).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을 통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사41:10)고 하셨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에 능통한 통역관과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365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다. 하루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니 무엇이 두려울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는 단 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근심, 걱정, 두려움은 기도의 부족이라는 것이 내 결론이다.

앞날이 걱정되는가? 앞이 깜깜한가?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는가?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난 2월 18일, 이태원 본부 교육관에서 2020학년도 예수중심제자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과 레벨테스트가 있었다. 이날 총회장 목사님은 선발을 위한 교육을 직접 진행하셨다.

"여기는 신학교가 아니다. 제자원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당연히 사명을 받은 자가 와야 한다. '사명(使命)'이란 나를 부리는 자에게 목숨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 당신의 제자가 되는 자격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다. 첫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14:26)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내가 그 과정을 겪어봐서 잘 안다. 부모와 자식과 처를 뒤로 하고 벧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심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둘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7).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문화적인 지식, 내 생각, 내 아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대립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내 지식과 생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될 뿐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지식과 최고의 배경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3:7~8)고 고백했다. 그 이유인즉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3:8~9)라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 생각과 지식을 버려야 한다. 즉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죽어야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찐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14:28). 쉽게 말하면 주의 길을 갈 마음의 준비, 환경의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더욱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먹고살 것을 준비해놓고 왔느냐 이 말이다.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만 믿습니다.' 한다면 가족들이 시험에 들 수 있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너희를 옥죌 수 있다.

자기 형편과 자기 신앙과 자기 준비 정도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진솔하게 거울 속의 인물과 대화해 봐라. 그래서 승산 없는 게임이다 싶걸랑 돌아서라(눅14:31).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다시 기회가 있다. 준비 없이 가다가 중도에서 손들면 사람들이 비웃어 아니 간만 못하지 않겠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눅14:33), 준비가 완전할 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위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놓으셨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2:4). 가족이든, 경제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얽매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군사로 합당하다는 것이다.

다 사도가 될 필요는 없다. 다 교사가 될 필요도 없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 그러므로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하여 위 말씀에 부합되지 않거든 과감히 내려놓자. 나는 소수 정예부대를 원한다."

목사님의 교육 후 지원자들은 1, 2차 레벨 테스트를 치렀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또 목사님이 다시 예수중심제자원을 여신 이유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부디 예수중심제자원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이초석 목사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

신묘수 전도사

2020학년도 예수중심제자원 선발교육(본부 교육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3:1~19)

누굴 탓하냐, 다 네 잘못이다

실패자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잘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건 첫 사람 아담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6~17)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워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드겼습니다. 그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의 꼬임에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고 묻자 아담의 답이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2). "하나님, 저를 죄짓게 한 것은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와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라더니 하와 역시 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핑계는 살아남기 위한 아주 조잡한 수단이다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담은 하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놓고 하와 탓, 하와를 주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만일 회개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다시 쓰였을지 모릅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시느라 정신이 팔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납하지 않으신 거지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는 이유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시간이 지체되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며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뛰며 노래합니다. 이를 본 모세가 어찌하여 이리했느냐고 아론에게 추궁하니 아론 왈,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출32:22~24)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도해놓고 백성 탓을 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사울도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redacted]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 죽이라고 하셨건만(삼상15:3),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그래놓고 그를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삼상15:15)라고 했습니다. 21절에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라고 변명했습니다. 백성 탓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처녀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 즉 자기들 탓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젊어서 고생해도 늙어서 풍요로운 자들이 복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앞에 기술한 자들은 다들 끝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아담의 인생은 처음 에덴에서 아름다웠으나 에덴에서 쫓겨난 신세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되었고, 사는 동안 인생고를 짊어져야 했으며,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역사상 첫 살인자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완전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충신인 우리아의 처를 범하고, 우리아의 처인 밧세바가 수태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를 쓰다가 그게 먹히지 않자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이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남을 탓하지 않고,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삼하12:13)고 고백합니다. 씨를 뿌리면 싹은 나는 법인지라 죄의 열매를 거두는 고통은 치렀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시작보다 끝이 좋으려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하려면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탓,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만 탓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식당 음식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주차장이 불편해서 식당이 안 되는 것이지 옆집 식당 때문이 아닙니다. 내 식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할수록 회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쪽박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교회의 어느 목사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이초석 목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소리 때문에 성도들이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초석 목사 때문에 잘 되는 교회는 뭡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고, 설교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해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초상이 났는데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조차 조문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내 탓입니다. 평소 대인관계가 어떠했는지, 내 처신이 어떠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부도난 것, 내가 사기당한 것, 내가 건강치 못한 것, 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남을 탓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책임 전가요, 핑계일 뿐입니다.

문제는 죄가 아니라 회개치 못하는 것이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인 줄 압니까? 수리형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탓했다는 것은 벌써 낭패를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수시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형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매번 정도만 걸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쁜 길임을 알았다면 누굴 탓하지 말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남 탓하는 자 치고 회개하는 자 못 봤고, 노선 변경하는 자를 못 봤습니다. 다윗처럼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안 가야 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로 죄를 깨달은 다윗은 늙어 신하들이 동녀로 시중들게 했으나 절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왕상1:4).

저도 목회 9개월 만에 교회가 깨진 것은 전적인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리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회가 어째서, 장로회가, 청년회가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했더니 지금 예수중심교단과 교회가 일궈졌습니다.

끝이 좋고 싶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디 남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관용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19: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무엇이든지 풍성히 구해라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롬8:32).

입을 크게 열어 풍성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10을 구하면 10플러스(+)를 주시고 100을 구하면 100플러스(+)를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면 안 된다.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랴 했더니, 지혜를 달라 하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보너스로 주셨다. 한나가 애통하며 '아들 하나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들 셋과 두 딸을 주셨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시고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여 두 배가 넘치게 물고기를 주셨다. 보리떡을 강청하는 자에게 보리떡과 성령을 보너스로 주셨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천 명을 다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나 남게 주셨고, 칠병이어 사건에는 사천 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나 남게 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신다. 우리가 하나님 사정 생각해드려야 할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살면 되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면 안 된다. 필요한 대로 넘치게 구해라. 하나님의 사정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는 길에 바다와 강이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돌 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태양이 멈춰 서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수없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엘리사처럼 '엘리야,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 원한다'고 해라. 요한과 야고보처럼 당신 좌우편에 우리들을 앉게 해달라고 구하자.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나 그 자리에 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작년에 안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다. 어제는 안됐어도 오늘은 될 수 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도 아침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서 두 배 가득 잡아 올린 것처럼 오늘은 가능한 날이다. 올해는 가능한 해이다. 입을 다시 크게 열고 영·혼·육을 백배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자. 작게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해라. 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

이시대 목사

:: 겨자씨만한 믿음 ::

마음의 평화

현대사회는 누구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간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와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신경 써야 할 곳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늘어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를 아주 잘 충족시키는 편리한 제품들이 생산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기탐욕이 일어서 평안을 누리기 어렵다. 평안한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8~30).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다. 그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병에 걸리면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라는 멍에를 지어준다. 의사가 지어주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병이 치유된다. 환자가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한다면 병은 고쳐지지 않고, 이는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로워 쉼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배운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짐을 다 어깨 위에 메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미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짐을 어깨 위에 메고 있을 필요는 없듯이.

이제 십자가 밑에 짐을 풀고 순종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자.

김성일 집사

:: 진리의 학당 ::

가인의 세계 (창세기 4:1~7)

영이신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영생하시는 신으로서 유일하시다(히1:3).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호흡하는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지으셨고, 생육하는 한 남자에게 생기를 부어 생령이 되게 하셨으니(창2:7), 모양은 수한을 다하면 흙으로 복귀하여 소멸되지만, 생령은 선악 간에 심판을 받아 영생과 영멸로 구별하심이 하나님의 의이다.

아담은 인자의 출생과 죽음의 노정에 부름 받았다(롬5:14). 그러나 음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던 아담이 생명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김으로써 영에는 사망이 왔고, 저주는 육체가 짊어지게 되었다. 몸은 흙이요 마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하셨으니(창3:14), 이때부터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를 먹이 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본 된 토지로 돌아온 아담은(창3:23) 신령한 복이 단절되었고 가시 엉겅퀴와 싸우는 고달픈 인생고 속에서 당초 육체에 허락받은 생육번성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아들을 낳았고(창4:1~2), 아들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의로 인정하셨으나(히11:4) 가인의 의식적 제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제사를 실패한 가인은 세상 신의 유혹과(요일2:12)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창4:7) 동생을 죽인 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며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가인을 만나는 그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창4:14~15).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사는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얻었다.

이처럼 에덴의 동서쪽에는 아담 가족 3명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음에도 왜 이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생령인 아담과 그 후예들의 이름과 연대만을 기록할까?

창세기 1장은 물질계와 사람을 비롯한 생물의 생육번성의 물리적 복을 기록했고, 2장은 신령한 복을 기록했으니 생령과 영적처소인 에덴에 대해서다. 성경은 이렇게 물질계와 영계, 세상과 에덴, 생령과 사람들에 대하여 순차를 따라 명백한 구분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물질계와 영계의 두 상황이 뒤얽혀있음으로 혹 성경이 난해하여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성경에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덮어둘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창세기 3장은 에덴에서 뱀이 생령을 접수하는 과정과 심판에 대하여, 4장은 성경 최초로 가인의 세계를 기록했다(창4:16~24). 이어지는 5장에서는 먼저 1장에서 '생육 번성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통칭하셨음을 회고한 후(5:1~2), 비로소 BC 4,100년경에 시작되는 아담의 계보는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으로 이어지고 이후 노아 홍수까지 10대를 기록한다(창5:3~32).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통칭하신 개별이름이 없는 인류는 단순한 육적 존재로서, 아담이 생기를 받아 생령이 될 때 '탈락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네피림' 이라 부른다(창6:4). 이들 영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영적 교류도, 신령한 계명도 없으므로 죄나 심판의 개념 또한 없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될 개별의 이름이 없으니 물속에 넣으면 동물과 같이 그 존재의 소멸을 맞는 시한적 존재들이다. 그러나 영을 부어 생령이 된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연대는 인자가 나실 때까지 기록된다(눅3:23~38).

가인은 부모로부터 생령을 받은 영적 존재이지만 부인은 사람의 딸(창6:1), 곧 네피림임으로 그들에게서는 육적 사람만 출생했고 홍수 심판으로서 종말을 맞게 되었으니 '가인의 세계'에서 영생 얻은 자가 있는가(창6:1~4)? 우리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와도 후손들이 교회 밖에 유리하지 않도록 생명 진리를 상속해야 하고 영적 생활을 독려해야 할 이유이다. 네피림(נפילי)은 단순한 혼적 존재로서, 생령으로 선택된 아담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킨다. '떨어지다'의 히브리어 동사 나필(נפל)에서 유래한 복수명사로 '떨어진 자들', '탈락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고고학에서 밝혀내고 있는 찬란한 고대문명은 이들 네피림의 작품일 터이다. 그러므로 아담을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본다면 창세기의 많은 기록들은 신화로 취급될 수 있다. 성경은 아담의 연대를 BC 4,100년경으로 기록한다.

박덕규 목사

:: 에덴으로 귀환 ::

행복한 결혼의 조건

대학교 2학년이 갓 넘어서야 처음 연애를 하게 된 저는 연애기간을 3~4개월 이상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는 어머니께 이성 친구를 보여드릴 때마다 매번 헤어질 것을 권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 싫다 하시면 그렇게 멋지게 보였던 남자친구가 날이 거듭될수록 점점 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의 이유가 어머니께서 반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면 매번 다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이성 친구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님의 의견이 정말 많이 중요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지혜와 식견이 있으신 인생의 선배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주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28살 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양가 부모님들께도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하기로 한 바로 전날, 어머니께서는 한 꿈을 꾸셨고, 저는 그 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속에서 제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행복해하며 신혼집으로 향해 가는데 어머니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갑자기 남자친구가 엄청 큰 프라이팬으로 제 뒤통수를 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터라 정말 크게 상심했었고, 회복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동생의 소개로 2010년 여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보자마자 단번에 반하셨습니다.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번갯불에 콩 굽는 듯 결혼을 밀어붙이셨습니다. 교제한 지 한 달 만에 청혼을 받고, 두 달 만에 상견례를 하고, 석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의구심이 들 때 즈음, 저와 남편, 어머니, 동생은 전부 꿈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9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항상 이해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귀한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점점 커가는 남편의 신앙을 가장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매번 변덕이 항상 고맙다고 하시며, 누나의 힘든 성격을 너무 잘 아는 동생들도 매형이 최고라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우선된 조건도 있고, 그와 동일한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보다 우선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남자를 혹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과연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남녀 간의 사랑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조건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입니다.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부모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결혼을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생각, 혹은 시대에 뒤처진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에베소서 6장 1~3절).

김은유 집사

:: 울림 있는 삶 ::

퍼주는 장사

한식과 분식을 경영하는 나의 식당은 분식(라면)만 주문해도 푸짐한 반찬과 공기밥을 서비스로 드린다. 거기다 커피까지 제공하는 모습에 딸아이는 기겁을 한다. 뭐가 남느냐고. 나는 빙그레 웃으며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그 손님은 동료들을 데리고 올 것이고, 가끔은 고가의 음식도 주문하는 단골이 된다며 어느 고객을 예로 들어 친절히 대하라고 설득한다.

어플 광고를 오래 해온 나는 날마다 신규 오픈으로 등장하는 업체와 수많은 음식점들이 경쟁에 밀려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기에 고객이 선호하는 음식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이벤트로 서비스를 하며 꾸준히 단골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인다. 목사님께서 '단골고객은 고정수입이다', '고객은 서비스나 음식 맛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많은 업주들이 재료비 구성을 30%~40%로 잡지만, 가끔씩 나는 '오늘은 무료로 제공하는 날이다.'하며 고가의 음식을 주 거래처에 배달하며 월말에는 감사 인사와 선물을 빠뜨리지 않는다.

사업에 실패한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불경기를 탓하고 '내가 왕년에….'를 회상하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려는 조급함만 있지 현실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공황 90주년이 되는 시점인 현재까지 불경기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공자는 있기 마련 아닌가.

장사가 안 되는가? 우물이 깊다고 핑계 대지 말고, 내 두레박이 짧음을 인식하자. 그리고 지속적인 광고와 각종 이벤트로 사활을 걸어 보자. 뚝배기가 좋아도 장맛이 좋아야 하는 법, 맛있고 서비스도 좋다면 거리불문이요, 시간불문이 되거늘…. 아낌없이 1인분을 2인분처럼 퍼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장사가 잘되리라. 퍼주고 망한 놈은 없다.

추성숙 집사

:: 부르심의 소망 ::

내 하나님 우릴 들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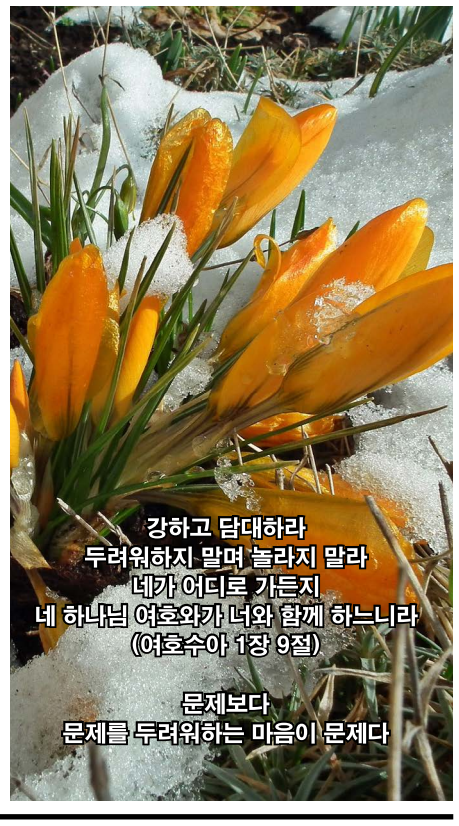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중국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 한국 선교사들은 문화의 차이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3년 사스가 발생하면서 잠자고 있던 중국 교회를 깨웠습니다. 전염병의 위협에도,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지 않고 중국교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스를 통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크게 각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매년 평균 10%씩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삼자교회에 등록한 기독교인은 2,800만 명 정도였고, 공인받지 못한 가정교회까지 합치면 1억 명이 넘는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1960년 문화혁명 이후로 가장 강력한 종교탄압을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4월, 단둥지역 등 북중 국경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무더기로 추방했고, 2017년까지 1,000여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허난성에서 4,000여 곳의 교회 십자가가 강제철거 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십자가를 폭파하고 불태웠으며,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이에 어떤 교인들은 맨몸으로 십자가를 감싸며 철거에 저항했고, 어떤 교인들은 길바닥에 버려진 십자가를 예수님 끌어안듯이 끌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2019년에는 우한을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하여, 49개 교회를 강제 폐쇄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영교회들은 중국 정부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십자가 대신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중국 공산당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학교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키고 기독교인 부모를 의심하고 고발하도록 하는 등 자녀세대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여, 중국 위건위 2월 11일 0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는 4만 2천638명, 사망자는 1천16명입니다. 사스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염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중국 내에는 소수의 한국 선교사들만 남아있고, 이들마저 떠나버리면 중국 기독교인들은 이 극한에서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교회 역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1919년 3·1만세운동 때 교인들을 교회당에 가둔 채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칼로 찌르는 등 무차별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200여 교회를 돌며 한국교회의 핍박을 알렸는데, 위 사건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19~1920년 한국 독립과 관련해 8,000건의 기사가 미국 신문에 실렸으며, 연인원 20만 명이 그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첫 국회를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게 되기까지 한국 기독교인들의 저항과 미국 기독교인들의 중보기도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 있는 교회들이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돕는다면 남아있는 중국인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한 복음 전파자로 파송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재건되고 미국 다음으로 해외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박영신
rubyday0@naver.com